

01 교회소식

소망과 비전이 움트는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 8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발간, 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 및 시무식 소식.

02 생명의 말씀

복 있는 사람(3)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 온 사람은 상급 심판으로, 악한 길을 걸어 온 사람은 형벌 심판으로 호리라도 남김없이 갚아진다.

03 기획특집

‘전도’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축복의 새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가족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사랑의 행함을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04 간증

“말씀과 권능으로 변화되는 만민~”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권능을 체험한 몰도바의 알렉산드르 타바리우 형제와 시력이 회복되고 이석증을 치료받은 백종심 권사 간증.

만민뉴스

제772호 2017년 1월 1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청소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 인물시리즈 1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발간

새해를 맞아 ‘이재록 목사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 8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1월 20일 발간을 앞두고 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믿음과 순종의 여정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교재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을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는 어떤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Part 1 신리와 순종’, ‘Part 2 희생과 순복’, ‘Part 3 사랑과 축복’ 세 파트로 나뉘져 총 12과로 구성된 이번 교재는 과마다 ‘생각 나누기’와 ‘꼭꼭 다지기’ 코너를 통해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구성하였다.

창세기 전반의 이해를 돕는 ‘창세기 따라잡기’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의 사명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영적인 내용을 다룸으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며 신앙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에는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1)(2), 『사람이 다스러야 할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1)(2), 『만나 Time』이 있다.

주를 위한 헌신의 소망을 더해준 ‘2017년 시무식’

재창조의 권능으로 교계와 세계를 덮어갈 축복의 2017년 시무식이 1월 2일 오전 10시, 주의 종과 레위족(교회 상근 직원)

등 707명이 모인 가운데 분당에서 있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산상기도 중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하여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가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에 고난의 길임에도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화되는 것도 주를 위한 수도도 더 빠른 속도로 열매 낼 수 있으니 천국 소망으로 더 행복하고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2017년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참석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루는 축복 된 제단의 직분자로서 사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더욱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의 일에 힘을 것을 다짐했다.

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특강 잇따라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학생주일학교(교장 김창민 전도사)에서는 1월 3일부터 25일까지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진은 학생주일학교 출신 선배 대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중등 영어는 화~목요일 6성전에서, 고1 수학은 월~목요일 연합성결신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교육인선교회(회장 주정자 권사)에서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초등 4, 5 학년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영어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수학은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4~6)

복 있는 사람(3)

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지 않으니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요.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악을 행치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마음에 활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느끼니 그 행복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지요.

더욱이 천국 소망이 있으니 많은 상급을 쌓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혹여 어려움을 당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니 결국 시험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에 활례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버리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우며 세상의 정욕을 좇아 마음이 요동하지요. 천국 소망이 없으니 어려움을 겪으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며 슬퍼하니 시험 환난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결국 세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2. 복 있는 사람은 영을 좇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 버리면 결국은 악행의 결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한 대로 온갖 질병이나 재앙,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여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으니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조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해도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끝없이 되풀이될 뿐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꾼들끼리,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요. 낚시나 등산을 좋아하면 역시 그것을 좋아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모이게 됩니다. 반면에 욕을 좇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분당을 짓습니다. 남을 헐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늘 수군수군하며 말을 전하고 판단 정죄하지요.

이처럼 영을 좇는 선한 사람과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욕을 좇아가는 악한 사람은 결국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리해 놓으신 것이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지요(마 13:49~50).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성결을 이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갑니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붙이신 천사가 있어서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았다가 마지막 날에 그 기록에 따라 심판이 이뤄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선한 길을 간 사람은 상급 심판으로, 악한 길을 간 사람은 형벌 심판으로 호리라도 남김없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그 길을 인정받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받고 영광을 누리지만(시 40:2),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죽을 상황에서도 살리시며 결말을 책임지시지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형통한 축복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시 1:1~2 ; 요삼 1:2).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결말을 살펴봄으로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달리 시험 환난이 와도 승리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합니다. ‘겨’는 벼를 찧어서 벗겨낸 껍질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려 사라지고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람’은 영적으로 시험 환난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선 의인은 어떤 시험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능히 승리합니다. 의인과 달리 악인은 시험 환난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지요. 재앙이 와도 지켜 줄 사람이 없으니 피할 길을 찾지 못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전도’는 사랑의 열매

2017년 새해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가족 복음화도 온전히 이루고 싶어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상대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만하고 때론 성내기도 하며 악한 일을 일삼고 불의를 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랑과 위배되는 모든 비진리의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려면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만일 사랑으로 섬긴다 하면서 ‘사람이 열 번을 받았으면 한 번쯤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저렇게도 염치가 없을까?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무

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의 형편과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오히려 내 편에서 도와줄 것을 찾는 사랑이라 모든 것을 참는 온전한 사랑이다.

또한 어떤 분야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작은 장점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을 만일 진리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믿지 못할 사람이기에 가까이 대하기가 꺼려지니 결국 멀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상대의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 주고 높여줄 수 있다. 상대의 거짓말을 보고 자신의 의 가운데 참지 못하고 싫어지는 것

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좋은 점을, 그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는 늘 인정받기 원했지만 인정받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에 만족을 얻게 된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속이거나 과장한 것이 아니요, 진실로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인정받은 것이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상대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으로 상대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은 자신에게 먼저 믿음과 소망이 임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원리를 적용하면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으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리고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으로 복된 삶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행한다면, 반드시 구하는 바를 실상으로 얻게 된다(히 11:1). 따라서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원리를 적용하면 응답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 할 때 변함없는 믿음으로 남편이 전도될 것을 바라본다면, 그

아내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도 남편과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남편의 현실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어도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비록 그들이 세상과 벗하며 산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 가운데 섬길 수 있다.

온전한 열매를 얻기까지 다가오는 일들의 모든 여파를 견디세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란다 해도 그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순간에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

온전한 열매로 맺혀 따기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주기만 했던 상대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않고 변개치 않으며 사랑으로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딜 때 결국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는 것이다.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 탐스럽게 익기까지는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따가운 햇살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매가 맺혔다 해도 풍파를 견디지 못하면 떨어져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다가오는 일들에 따르는 모든 여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던 실상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이제 막 복음을 심은 사람이 있다면 때를 좇아 물을 주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롬 10:17)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과 기사와 표적, 권능

의 역사에 대해 전해야 한다. 그가 장차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을 전도한 사람에게 세세토록 감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함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 문을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동안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더욱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2017 JANUARY
2017. 1.15~ 1.21

주요프로그램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1
- 믿음의 분량 23-27
- 십자가의 도 6-10
- 창세기 강해 67-73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3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7-12
- 아름다운 성전
- 사랑 1-4

GCN TV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1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59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8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5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8 (김수정 목사)
- 명품 신앙 (임화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4
- 권능 스페셜 19
- 창조와 과학 18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2
- 내 마음의 찬양 28
- 모두 드려요 43
- 마지막 때 6
- English 8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6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은 길 23

GCN HD 채널 ktallesh tv 882번

“몰도바에서도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타바라누 형제
(32세, 몰도바)

‘블로 달귀진 프라이팬에서 소금이 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니...’ 2009년 10월경, 러시아어 위성방송인 TBN 러시아를 통해 들은 이재록 목사님의 지옥 설교는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밴드부에서 호른을 연주하며 지휘자로 활동하였지만 죄를 지어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이 말씀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희열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후 TV뿐 아니라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manmin.org), 유튜브, 인빅토리(invictory.org) 등을 통해 자료들을 찾아 읽고,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등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정리하며 큰 은혜를 받아 술, 담배를 끊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만민의 사역을 전하니 그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급성 폐성심으로 죽어가던 어머니가 소생하고

2014년 4월, 저를 포함한 9명이 ‘만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명쾌하게 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된 복음을 저희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고, 영혼들은 모여들었지요. 그러던 중 제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5월경, 어머니 따씨야나 타바라누 성도가 급성 폐성심(폐질환이 원인으로 심장의 우심실계의 비대, 확장을 일으킨 상태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 온몸이 붓고 나무껍질처럼 딱딱해지더니 숨을 쉬기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앞으로 6주 안에 돌아가실 것이니 유언을 받아놓으라.”고 했지요.

저는 급히 한국으로 기도요청을 드렸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설교 후 환자기도 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를 만에 어머니

는 온몸의 부기가 다 빠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지요. 이후 건강이 회복되어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014년 10월부터는 성전을 임대해 교회로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갔습니다. 현재는 어린이를 포함해 70여 명의 성도가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사모하며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몰도바 성도들

감사하게도 저희는 매일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씩 기도회를 하고 있으며, 대예배는 시차 관계상 GCN방송 녹화파일로, 저녁 예배와 금요일예배는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당

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책자와 설교로 열심히 전도하며 다른 도시에도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와 세 명의 성도는 꿈에 그리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떨림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보았는데, 그 순간 저희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인자함과 포근한 사랑으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시며 기도해 주셨지요.

교회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속에 감동적인 성탄 전야공연과 예배, 각종 모임과 교회 곳곳을 돌아보며 저는 그동안 교회 리더로서 느끼던 부담감이 사라지고 목자의 사랑으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참임을 확실히 증거하는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몰도바뿐 아니라 루마니아에도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귀한 생명의 목자를 만나게 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당회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이석증’도 치료받았어요”



백종심 권사
(53세, 2대대 12교구)

저는 시력이 좌우 0.6/0.4로 안경을 착용해야 했지만 귀 뒤쪽에 발진이 생겨 안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시력 회복을 마음에 품으셨다고 하셔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8월 8일 수련회 첫날 당회장의 기도를 받은 뒤, 성경을 볼 때 눈에 피로감이 없었고 따끔거림과 뻑뻑함도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10월 초, 시력 측정 결과 양쪽 1.0

으로 좋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물이 선명하게 보임은 물론, 이제는 작은 글씨를 봐도 눈에 전혀 불편함이 없지요.



10월 말,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더니 2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속까지 울렁거리며 식욕도 떨어졌고, 몸에 힘이 쭉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지럼증은 계속 되었습니다.

11월 10일, 정확한 병명을 알고자 신경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더니 ‘이석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속한 기도제물연합회(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기관)에서 저의 치료를 위해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해 준 뒤 몸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온전히 치료받고자 금요일예배 때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으니까 그 즉시 시야가 밝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짐은 물론, 울렁거리던 속도 편안해졌지요.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월 14일,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안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76-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